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의 여래장 해석

The Interpretation of tathāgata-garbha in Vajra-samādhi-sūtra-śāstra by Wonhyo

저자 (Authors)	양용선 Yang, Yong-Sun
출처 (Source)	불교학보 94 , 2021.3, 179-202 (24 pages) BUL GYO HAK BO 94 , 2021.3, 179-202 (24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42697
APA Style	양용선 (2021).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의 여래장 해석. 불교학보, 94, 179-202.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06 13:1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의 여래장 해석

양용선(승행)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정사 상임연구원

- I. 서론
- II. 두 가지 여래장 해석의 흐름
 - 1. 전번론에 의한 해석
 - 1) 현대학자들
 - 2) 옥 로덴세랍
 - 2. 현현론에 의한 해석
- III. 원효의 여래장 해석
 - 1. 장(garbha, 藏)
 - 2. 계·성·체(dhātu)와 종성(gotra)
- IV. 결론

<한글요약>

본여래장사상은 『여래장경』에서 일체 중생이 여래장(tathāgata-garbha)임을, 더불어 『열반경』에서 일체 중생에게 불성(buddha-dhātu, 佛性)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상이다. 특히 일체 중생이 여래장인 것에 대해서 『보성론』 제1장 제27계송에서는 법신(dharma-kāya), 진여(tathatā), 종성(gotra)의 세 가지 의미로 분석한다. 지금까지 여래장과 불성은 전변론(轉變論)과 현현론(顯現論)에 의해서 해석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전변론에 의한 해석은 대표적으로 다카사키 지키토와 옥 로덴쎬랍이 있고, 현현론에 의한 해석은 진제(眞諦)가 한역한 『불성론』과 원효(元曉)가 주석한 『금강삼매경론』이 있다.

여래장(tathāgata-garbha)과 불성(buddha-dhātu, bauddha-gotra)은 현대 학자들에게 전변론에 의한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현현론에 의한 해석은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전변론에 의하면, 여래장과 불성은 일체 중생 안에 가능성·원인(dhātu, gotra, hetu)으로서 존재하는 유위법이다. 반면에 현현론에 의하면, 일체 중생(bauddha-gotra)이 섭장(garbha, 攝藏)하고 있는 무구진여·불성(buddha-dhātu), 혹은 여래법신·불성(buddha-dhātu)은 번뇌장의 유, 무에 따라 은복(garbha, 隱覆)되어 있거나 현현(顯現)하는 무위법이다.

진제가 한역한 『불성론』은 유가행과의 관점에서 여래장을 해석하고, 『금강삼매경론』에서 원효는 『부증불감경』과 『승만경』을 바탕으로 해서 여래장을 해석한다. 구체적으로 『여래장경』의 “sarva-sattvās tathāgata-garbhāḥ”를, 진제는 “일체 중생은 무구진여·불성을 섭장하고 있는 붓다에 속한 종성들이다.”라고 해석하고, 원효는 “일체 중생은 여래법신·불성을 섭장하고 있으나 번뇌장에 은복되어 있는 붓다에 속한 종성들이다.”라고 해석한다.

이제까지 여래장사상이란 일체 중생에게 여래장(여래가 될 원인)·불성(붓다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효의 해석에 의하면, 여래장사상은 일체 중생이 본래 여래·붓다임을 주장하는 사상이다. 구체적으로 일체 중생이 섭장하고 있는 계·성·체(dhātu)가 여래·붓다임을, 그러나 아직은 계·성·체가 번뇌장에 은복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사상이다. 이것이 바로 『보성론』 제1장 제27계송에서 설하고 있는 여래장사상이다.

주제어 : 여래장, 불성, 현현론, 여래장경, 보성론, 불성론, 금강삼매경론

I. 서론

여래장사상은 『여래장경』에서 “sarva-sattvās tathāgata-garbhāḥ”라고, 더불어 『열반경』에서 “一切衆生 悉有佛性”이라고 주장하는 사상이다. 이후 여래장사상은 인도에서 『부증불감경』과 『승만경』을 거쳐 『보성론』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다. 동아시아에서는 진제(眞諦, 499-569)가 한역한 『불성론』에서 여래장(tathāgata-garbha, 如來藏)과 불성(bauddha-gotra · buddha-dhātu, 佛性)이 유가행파의 입장에서 고찰된다. 이것이 원효(元曉, 617-686)의 『금강삼매경론』에서 교학적으로 재고찰된다. 티벳에서 『보성론』을 최초로 번역하고 주석한 옥로덴쎄랍(rNgog Blo ldan shes rab, 1059-1109)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고찰들은 여래장을 법신, 진여, 종성의 세 가지 의미로 분석한 『보성론』 제1장 제27계송¹⁾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것들이다.

여래장에 대한 해석은 전변론(轉變論)과 현현론(顯現論)에 의한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현대학자들에게 전변론에 의한 해석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²⁾ 이는 옥로덴쎄랍의 영향이 크다. 현현론에 의한 해석은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지만 전거가 제한적이다.³⁾ 현현론에 의한 『보성론』의 번역과 해석도 지금까지는 없다. 다행히 현현론은 이미 『불성론』과 『기신론』에서 잘 나타나 있다. 둘 다 진제 한역이다. 다만 『불성론』은 유가행파의 입장에서 여래장을 해석하고 옥로덴쎄랍과 사상적인 입장이 같다. 반면에 『기신론』은 『보성론』과 『능가경』에서 설해진 여래장사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특히 『기신론』을 주석한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부증불감경』과 『승만경』에 기초해서 여래장을 해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원효의 여래장 해석에 의해서 『보성론』 제1장 제27계송을 번역하고 여래장사상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두 가지 여래장 해석의 흐름

전변론(轉變論)은 일체중생에게 있는 여래장(tathāgata-garbha) · 불성(bauddha-gotra · buddha-dhātu)을 점차적으로 변화·성장해 가는 유위법으로 간주한다. 대표적으로 다카사

- 1) RGV p.26,1-4. “buddha-jñāna-antar-gamāt sattva-rāśes tan-nairmalyasya-advayatvāt prakṛtyā | bauddhe gotre tat-phalasya-upacārād uktāḥ sarve dehino buddha-garbhāḥ ||27||” 참조.
- 2) 平川彰 編, 『如來藏思想とは何か』, 『如來藏と大乘起信論』(東京: 春秋社, 1990), pp.60-68. 참조.
- 3) 미하일 짐머만, 『여래장경』 재고-불성의 9유를 중심으로, 『여래장과 불성』, 下田正弘 외 저, 김성철 역(서울: 씨아이알, 2015), pp.122-128. 참조.

키 지키토는 여래장사상이란 일체중생에게 여래의 태아(여래가 될 원인)·불성(붓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이라고 주장한다.⁴⁾ 티베트의 옥 로덴쎬랍은 garbha·dhātu·gotra 모두를 본질·본성(snying po)으로 해석하면서,⁵⁾ 이것이 일체중생에게 가능성(thob tung)으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⁶⁾ 반면에 현현론(顯現論)은 일체중생(bauddha-gotra)이 섭장(garbha, 攝藏)하고 있는 무구진여·불성(buddha-dhātu; 진제의 경우), 혹은 여래법신·불성(buddha-dhātu; 원효의 경우)이 번뇌장의 유, 무에 따라 은복(garbha, 隱覆)되어 있거나 현현(顯現)한다고 해석한다.

1. 전변론에 의한 해석

1) 현대학자들

다카사키 지키토는 『여래장경』의 “sarva-sattvās tathāgata-garbhāḥ”를 “여래를 태(胎)에 품고 있다.”라고 해석하고,⁷⁾ tathāgata-garbha를 법신, 진여, 중성의 세 가지 의미로 분석한 『보성론』 제1장 제27계송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첫째] 중생의 취(聚)에는 불지(佛智)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둘째] 저 [중생취가] 무구인 것이 본래 [붓다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셋째] 붓다의 중성(=원인)에 있어서, 그 결과(=붓다)를 상정하기 때문에,
 ‘모든 유신자(有身者)는 붓다를 태에 품고 있다.’라고 [붓다에 의해서] 설해졌다.⁸⁾

『보성론』에 의하면, 첫째는 여래·법신이 변만하다는 의미, 둘째는 여래의 진여가 차별이 없다는 의미, 셋째는 여래에 속한 중성이 존재·출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⁹⁾ 이 세 가지 의미

4) 高崎直道, 『如來藏思想の形成』(東京: 春秋社, 1974), pp.10-13. 참조.; 高崎直道, 『如來藏·佛性思想』, 『如來藏思想 I』(京都: 法藏館, 1988), pp.6-7. 참조.; 高崎直道, 『唯心·如來藏』, 앞의 책(1988), pp.123-125. 참조.

5) 高崎直道, 앞의 책(1974), pp.127-190. 참조.; 下田正弘 저, 이자량 역, 『열반경 연구』(서울: 씨아이알, 2018). 참조.

6) 차상엽, 「옥 로덴쎬랍(rNgog Blo ldan shes rab)의 여래장 이해」, 『불교학리뷰』 제10권(서울: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11), pp.142-146. 참조.

7) 高崎直道, 『寶性論』(東京: 株式會社講談社, 1989b), p.44.; 高崎直道, 앞의 책(1974), pp.19-22.

8) 高崎直道, 앞의 책(1989b), p.44.; 高崎直道, 앞의 책(1974), pp.19-22.

9) RGV p.26,7-9. “yad-uta sarva-sattveṣu tathāgata-dharma-kāya-parispharaṇa-arthena tathāgata-tathatā

를 『보성론』에서는 차례대로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첫째는 “tathāgatasya-ime garbhāḥ sarva-sattvā” 둘째는 “tathāgatas tathatā-eṣāṃ garbhāḥ sarva-sattvānām” 셋째는 “tathāgata-dhātur eṣāṃ garbhāḥ sarva-sattvānām”이다.¹⁰⁾ 이들을 다카사키는 다음과 같이 각각 번역한다.

저 일체중생들은 여래의 태아들이다.

여래 즉 진여가 저 중생들의 태아이다.

여래성(如來性)이 저 중생들의 태아[즉 장래 여래가 될 원인]이다.¹¹⁾

다카사키는 일체중생 속에 garbha(태아)·dhātu(가능성)·gotra(능력)이 bija(종자)·hetu(원인)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¹²⁾ 첫째와 둘째보다는 셋째의 해석이 tathāgata-garbha의 본래 의미라고 주장한다.¹³⁾ 왜냐하면 첫째 여래·법신은 미래의 결과이고, 둘째는 이구진여만 여래이기 때문에, “일체중생이 여래[법신·이구진여]를 태에 품고 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카사키에 의하면,¹⁴⁾ 첫째는 허공이 모든 곳에 변만·변재하고 있는 것처럼, 불지·여래 법신이 중생들의 외부에 변재한다. 여래법신은 극칭정법계, 즉 미래의 결과이다. 둘째 무구진여는 중생과 여래에게 차별이 없지만, 오직 청정에 도달할 때만 이구진여·여래이다. 따라서 진여·여래는 중생들에게 태아의 상태로서 있다. 셋째는 중생 한 명 한 명에게 여래의 성(dhātu, 性)이 생기어서 태아(garbha)의 모습으로 있으나 중생들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성(dhātu)은 원인(hetu)을 의미하고, 세 가지 불신(佛身)이 생기하는 종성(gotra)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보성론』에서는 첫째 법신, 둘째 진여에서 『대승장엄경론』 등을, 셋째 종성에서는 『승만경』 등을 경증으로 들고 있다. 이중 『승만경』에서는 tathāgata-garbha가 불지(佛智)를 여원 유위법의 소의(āśraya)이기도 하고 불지를 여의지 않은 무위법의 소의이기도 하다고 설한다.¹⁵⁾ 이때 다카사키는 garbha를 태아로 해석하지 않고 불분명하게 장(藏)으로 해석한다.¹⁶⁾

-avyatibheda-arthena tathāgata-gotra-sambhava-arthena ca” 참조.

10) RGV pp.69,17-73,8. 참조.

11) 高崎直道, 앞의 책(1974), pp.20-21.; 高崎直道, 앞의 책(1989b), pp.122-128.

12) 高崎直道, 앞의 책(1974), pp.128-190. 참조.; 高崎直道, 「佛敎とインド社會—ゴートラgotraの觀念をめぐる—」, 『如來藏思想Ⅱ』(京都: 法藏館, 1989a), pp.203-208. 참조.

13) 高崎直道, 앞의 책(1974), p.22. 참조.

14) 高崎直道, 앞의 책(1974), pp.19-29. 참조.; 高崎直道, 앞의 책(1989b), pp.250-254. 참조.

15) RGV p.73,2-5. “tasmād bhagavaṃs tathāgata-garbho nīraya ādhāraḥ pratiṣṭhā sambaddhānām

왜냐하면 만약 여래의 태이라고 한다면, 무위법인 열반(결과; 一切淨法)을 체득하는 소의·원인이 될 수는 있어도, 유위법인 일체 취(趣; 一切染法)의 원인·소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염정의지(染淨依持)의 문제는 tathāgata-garbha를 여래의 태아로 해석하는 한 결코 벗어날 수 없다.¹⁷⁾ 옥 로덴제랍이 garbha를 본질·본성(snying po)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히라가와 아키라는 중생 속에 있는 tathāgata-garbha를 여래의 태아, 즉 유위법으로 해석하고 있는 다카사키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히라가와에 의하면,¹⁸⁾ garbha(태아)는 dhātu(界·性; 여래가 되는 성질)와 동의어이고 gotra(원인)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승만경』에서 상·락·아·정을 완성해서 부사의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여래법신이 번뇌장을 여의지 않는 것을 여래장이라고 한다면, 중생 안에 있는 저 여래장은 무상(無常)·전변(轉變)의 존재방식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윤회의 존재는 모두 무상(無常)이기 때문이다.

한편 유가행과의 tathāgata-garbha를 연구한 김성철은 『보성론』에서 둘째 진여에 대한 경증으로 든 『대승장엄경론』의 제37송과 주석을 “모든 중생들은 여래의 태아이다.”라고,¹⁹⁾ 첫째 법신의 의미로 해석한다. 즉 일체법에 변만한 법신·진여의 내부에 존재하는 일체중생이 바로 여래의 태아라는 것이다.²⁰⁾ 『섭대승론』의 여래장 해석도,²¹⁾ 오직 둘째 진여에만 국한해서, 주체적 측면인 법신의 변만성보다는 객관적 측면인 진여의 변만성에 의해 일체중생이 여래의 태아라는 사실을 해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²²⁾ 만약 김성철의 여래장 해석에 의한다

avinirbhāgānām amukta-jñānānām asaṃskṛtānām dharmānām | asaṃbaddhānām api bhagavan
vinirbhāga-dharmānām mukta-jñānānām saṃskṛtānām dharmānām niśraya ādhārah pratiṣṭhā
tathāgata-garbha iti” 참조.

16) 高崎直道, 앞의 책(1989b), p.128. 참조.

17) 高崎直道, 앞의 책(1974), pp.107-109. 참조; 高崎直道, 앞의 책(1974), pp.120-121. 참조.; 高崎直道, 「唯心と如來藏」, 앞의 책(1988), p.125. 참조.; 高崎直道, 「如來藏思想と緣起」, 앞의 책(1988), pp.199-200. 참조.

18) 平川彰 編, 「如來藏思想とは何か」, 앞의 책, pp.57-79. 참조.

19) 김성철, 「초기유가행과의 “여래장(tathāgatagarbha)” 개념 해석」, 『印度哲學』제27권(서울: 印度哲學會, 2009), p.114. 참조.

20) 김성철, 앞의 논문, p.117. 참조.

21) 『섭대승론석』(『大正藏』31, p.191下), “[진제 역] 釋曰 由是法自性 本來清淨 此清淨 名如如 於一切眾生 平等有 以是通相故 由此法是有故 說一切法 名如來藏” 참조.; 『섭대승론석』(『大正藏』31, p.344上), “[현장 역] 釋曰 自性清淨者 謂此自性本來清淨 即是真如自性 實有[於]一切有情 平等共相 由有[於]此故 說一切法 有如來藏” 참조.

22) 김성철, 「유가행과의 “여래장” 개념 해석 II」, 『印度哲學』제32권(서울: 印度哲學會, 2011), pp.208

면, 유가행파에서는 다카사키처럼 “일체중생에게 여래장·불성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2) 옥 로덴쎬랍

옥 로덴쎬랍은 티벳 최초로 『보성론』을 티벳어로 번역하고 주석서인 『대승 최상의 가르침에 대한 요의』를 저술한 중관학자이다.²³⁾ 그는 『보성론』 제1장 제27계송에 대해 법신, 진여, 종성을 여래와 중생의 측면에서 각각 가설인지 실재인지를 논한다. 제27계송에서 단지 종성의 측면에서만 언급된 시설(upacāra, nyebar btags pa)의 개념을 법신과 진여의 측면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옥 로덴쎬랍은 법신의 변재, 진여의 무차별, 종성의 존재에 대해 각각 결과, 자성,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본질·본성(snying po, garbha·dhātu·gotra)을 지니므로, “sarva-sattvās tathāgata-garbhāḥ”를 “일체중생은 여래의 본질·본성을 지닌다.”라고 해석한다.²⁴⁾

첫째 법신은 붓다에게는 실재이지만 중생에게는 이미 구현된 것이 아니라 단지 언어적으로 시설된 것이다. 따라서 일체중생은 결과적인 측면인 법신을 완전하게 구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신(결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인(thob tu rung, 가능성)이 일체중생에게 존재한다. 아울러 법신이 바로 공성이며, 이러한 공성이 일체중생에게 존재한다. 둘째 진여는 여래와 중생 모두에게 차별 없이 실재로서 존재한다. 이구진여인 붓다와 유구진여인 중생의 경우에도 자성·본질(무구진여)은 존재하며 중생의 흐름 속에 명백히 머문다. 무구진여는 객진번뇌의 유무로 인해 유구진여와 이구진여로 나뉘는 뿐이다. 진여 또한 공성에 불과하다. 셋째 종성(gotra)은 반야와 연민의 종자(bīja)로서 여래의 원인(hetu)이기 때문에 오직 중생에게만 실재로서 존재한다. 붓다에게 원인으로서의 종성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중생에게 여래는 단지 가설로서만 존재한다.

결국 옥 로덴쎬랍은 “sarva-sattvās tathāgata-garbhāḥ”를 “일체중생은 법신·진여·공성을 자신의 내부에 본질·원인·종성(가능성)으로서 지니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관학자인 옥 로덴쎬랍의 여래장에 대한 해석은 유가행파 『대승장엄경론』·『십대승론』과 천진(天親)이 지은 『불성론』에서 오로지 둘째 공성·진여를 중심으로 여래장을 해석하는 흐름과 같이한다. 현대학자들과 공통적인 것은 일체중생 혹은 여래법신 안에 있는

-213. 참조.

23) 차상엽, 앞의 논문, pp.127-161. 참조.

24) 차상엽, 앞의 논문, p.137. “sems can thams cad ni de bzhin gshegs pa’i snying po can no”

것을 태아·가능성으로서 존재하는 유위법(無常·轉變)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반면에 『불성론』에서 일체중생이 섭장하고 있는 무구진여·불성은 인과(因果)에 불이(不二)이고, 염정(染淨)에 변이(變異)하지 않고, 공덕들을 본유(本有)하고 있는 무위법이다.

2. 현현론에 의한 해석

『불성론』은 천친(天親)이 『보성론』을 재편집해서 재해석하고 진제(眞諦)가 한역한 논서이다. 『불성론』의 불성(佛性)은 buddha-dhātu 혹은 bauddha-gotra이다. 『불성론』에서 전자는 무구진여·불성이고, 후자는 주자성(住自性; 自性位)의 종성, 인출(引出; 因位)의 종성, 지득(至得; 果位)의 종성이다.²⁵⁾ 진제는 전자와 후자를 모두 동일하게 불성(佛性)으로 한역한다.²⁶⁾ 구체적으로 전자는 이공(二空)에 의해 나타나는 진여이고,²⁷⁾ 또한 자성위의 종성이 증득해야 하는 인(hetu; 소의)이고, 무위의 여리(如理; 진여)를 자성으로 하는 것이다.²⁸⁾ 한역 『열반경』에서도 불성(buddha-dhātu)은 일체중생들 몸속에 있는 상주불변하는 무위법이다.²⁹⁾ 후자에 대해서 진제는 자성위의 종성은 범부위의 중생, 인위의 종성은 초발심 이상 율학위의 성인, 과위의 종성은 무학위의 여래라고 해석한다.³⁰⁾ 이는 다카사키와 옥 로덴쎬람이 hetu·dhātu·gotra·garbha 등을 동의어로 간주하면서 모두 유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명백히 다르다.

『불성론』에서는 여래의 장(garbha, 藏)을 섭장(攝藏) 혹은 은복(隱覆)으로 해석한다. 섭장은 “안에 품고·담고·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은복은 “밖에서 감추고·덮고·막고

25) 『불성론』(『大正藏』 31, p.794上), “三種佛性者 應得因中具有三性 一住自性性 二引出性 三至得性” 세 가지 불성(gotra)이란 [차례대로] 증득해야 할 인(소의)[과 가행해야 할 인(원인)과 원만해야 할 인(가행)]을 안에 갖추고 있는 세 가지 종성이다. 첫째는 주자성의 종성이고, 둘째는 인출의 종성이고, 셋째는 지득의 종성이다.

26) 김성철 역주, 『불성론』(서울: 씨아이알, 2013), pp.26-31. 참조.

27) 『불성론』(『大正藏』 31, p.787中), “佛性者 即是人法二空所顯真如” 참조.

28) 『불성론』(『大正藏』 31, p.794中), “應得因者 二空所現真如 … 此三因前一則以無為如理為體” 참조.

29) 『니원경』(『大正藏』 12, p.886上), “其平等性者 是名如來藏 得聞如來性dhātu 離於一切界 常住不變易”; 『열반경』(『大正藏』 12, p.410下), “開示如來祕密之藏(여래장) 清淨佛性常住不變”; 『열반경』(『大正藏』 12, p.767下), “中道者 名為佛性 以是義故 佛性 常恒 無有變易(상주·견고·적정·불변) 無明[所]覆故 令諸眾生不能得見” 참조.; 下田正弘 저 이자랑 역, 앞의 책, pp.256-260. 참조.

30) 『불성론』(『大正藏』 31, p.794上), “記曰 住自性者 謂道前凡夫位 引出性者 從發心以上 窮有學聖位 至得性者 無學聖位” 참조.; 『불성론』(『大正藏』 31, pp.805下-806上), “是[三種]佛性gotra中 分別[一切]眾生 自有三種 一者不證見佛性dhātu 名為凡夫 二者能證見佛性dhātu 名為聖人 三者證至此理究竟清淨 說名如來” 참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래장과 불성을 동일시하는 다카사키와 옥 로덴쎬랍의 해석과는 거리가 멀다. 구체적으로 『불성론』에서는 법신, 진여, 종성의 장(藏)을 각각 소섭장, 은복장, 능섭장으로 해석한다.³¹⁾

첫째 법신은 세 가지, 정득의 법신, 깊고 심오한 정설의 법신, 거칠고 낮은 정설의 법신이 있다. 『불성론』에서는 “이 세 여래·법신이 변만해서 남김없이 일체중생을 섭장하고 있다.”라고,³²⁾ 장(藏)을 소섭장으로 해석한다. 그 근거는 자성위의 여여(如如)에 의해, 과위의 여래에 의해서다. 여여는 자성위에 있는 여여지(如如智)와 여여경(如如境)을 의미하고, 여래는 과위에 이른 법신이다. 여기서 『불성론』은 『보성론』 제27계송 첫째 법신의 의미를 “일체중생이 모두 여래 지혜의 내에 있다.”라고 해석한다.³³⁾ 왜냐하면 여여지가 여여경에 걸맞기 때문이고, 여여경에서 벗어나지 않은 일체중생을 여래·법신이 섭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래·법신의 자성인 여여·불성(dhātu)은 인과에 불이(不二)인 무위법이다.³⁴⁾

둘째 진여는 자성에 변이가 없고 공덕이 무궁하고 청정해서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여여라고 한다. 여여·진여는 일체재를 포함한 중생들에게 본래 차별이 없는 무구진여이다. 다만 무구진여가 본래 차별이 없지만, 오직 객진번뇌를 벗어나야만 이구진여인 여래법신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일체중생이 여래[법신의 자성인 여여·무구진여]를 섭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현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³⁵⁾ 그래서 “자성위에서 무시이래 객진번뇌에 은복되어 있는 무구진여·불성이 현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범부 중생은 이를 알지 못한다.”라고,³⁶⁾ 장(藏)을 은복장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무구진여·불성은 자성위에서든 과위에서든 변이하지 않고 상주하는, 즉 염정에 변이하지 않는 무위법이다.³⁷⁾

31) 『불성론』(『大正藏』 31, p.795下), “如來藏義有三種應知 何者為三 一所攝藏 二隱覆藏 三能攝藏” 참조 ; 高崎直道, 앞의 책(1989b), pp.324-328. 참조 ; 高崎直道, 앞의 책(1974), pp.22-23. 참조 ; 김성철, 앞의 책, pp.21-22. 참조 ; 김성철은 법신, 진여, 종성이 차례대로 소섭장, 은복장, 능섭장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성론』에서 일체중생과 법신, 진여, 종성의 포함관계(소섭, 능섭)와 각각의 해석들을 본다면, 차례대로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다카사키의 견해가 옳은 것으로 보인다.

32) 『불성론』(『大正藏』 31, p.808上-中), “釋曰 一正得法身者 體是真如 … 二正說深妙法身者 … 三 麁淺正說法身者 … 是三法身遍滿攝藏一切眾生界無餘故” 참조.

33) 『불성론』(『大正藏』 31, p.796上), “所言藏者 一切眾生悉在如來智內故名為藏 … 為如來之所攝持故名所藏 … 由此果能攝藏一切眾生故 說眾生為如來藏” 참조.

34) 『불성론』(『大正藏』 31, p.795下), “如來性dhātu 雖因名應得 果名至得 其體dhātu不二” 참조.

35) 『불성론』(『大正藏』 31, p.808中), “故說一切眾生為如來藏 能藏如來 不得顯現” 참조.

36) 『불성론』(『大正藏』 31, p.796上), “如來dhātu自隱不現 故名為藏 … 如來性dhātu 住道前時 為煩惱隱覆 眾生不見故名為藏” 참조.

37) 『불성론』(『大正藏』 31, p.796上), “此如性dhātu從住自性性來至至得 如體dhātu不變異故是常義”

셋째 종성은 자성위의 종성과 인출위의 종성이 있다. 자성위의 종성은 범부위의 중생이고, 인출위의 종성은 여래법신이 객진번뇌를 깨뜨리고 비로소 현현하는 인위의 성인이다.³⁸⁾ 이로부터 과위에서 무량한 공덕들을 갖추고 있는 세 가지 불신(佛身)이 성취된다. 이때 “과위의 무량한 공덕들을 자성위의 종성일 때에도 이미 다 섭장하고 있다.”라고,³⁹⁾ 장(藏)을 능섭장으로 해석한다. 만약 과위에서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는 여래법신을 비로소 처음 얻는다고 한다면, 여래법신은 무상·전변하는 유위법일 것이다.⁴⁰⁾ 따라서 자성위, 인위, 과위의 종성이 자성으로 하는 무구진여·불성은 무량한 공덕들을 본유하고 있는 무위법이다.⁴¹⁾

결국 『불성론』은 “sarva-sattvās tathāgata-garbhāḥ”를 법신, 진여, 종성에 의해서 차례대로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체중생은 여래법신에게 섭장되고 있다.

일체중생에게 있는 무구진여는 객진번뇌에 은복되어 있다.

일체중생에게 있는 무구진여·불성은 무량한 공덕을 섭장하고 있다.

이렇게 『불성론』에서는 법신, 진여, 종성을 중관학자인 옥 로덴쎬랍처럼 둘째 공성·진여로 귀결시키면서 이것이 일체중생 내에 있다고 해석하고, 특히 일체중생에게 있는 무구진여·불성을 다카사키와 옥 로덴쎬랍처럼 유위법이라고 간주하지 않고 무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독자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성에서 자성위, 인위, 과위에 있는 종성의 공덕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나 여래장이 일체정법의 원인·소의라는 분명한 언급도 없고, 자성위 혹은 인위에서 여래장이 일체법법의 소의·원인인 경우에 대해서도 『불성론』은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침묵은 다카사키와 옥 로덴쎬랍의 경우처럼 여전히 염정의 지에 대한 문제를 남겨놓고 있다.

참조

- 38) 『불성론』(『大正藏』 31, p.808下), “此法身能破煩惱轂 其體顯現故” 참고.
 39) 『불성론』(『大正藏』 31, p.796上), “果地一切過恒沙數功德 住如來應得性時 攝之已盡故” 참조.
 40) 『불성론』(『大正藏』 31, p.796上), “若至果時方言得性gotra者 此性gotra便是無常 何以故 非始得故 故知本有 是故言常” 참조.
 41) 『불성론』(『大正藏』 31, p.796下), “二無別異性者 凡夫聖人及諸佛gotra 無分別心性dhātu 過失功德究竟清淨處 平等遍滿 譬如虛空 又如土銀金器 此三gotra雖異 而其性dhātu等皆是空 空處不別故” 참조.

Ⅲ. 원효의 여래장 해석

원효의 여래장 해석은 『금강삼매경』에서 세 번에 걸쳐 설해진 “如來藏 性寂不動”에 대한 주석에서 잘 드러난다. 원효는 『금강삼매경』을 여래장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설해진 경전으로 간주한다.⁴²⁾ 구체적으로 첫째 “無生之心 心無出入 本如來藏 性寂不動”은 시각(始覺)이 본각(本覺)인 것에 대해서, 둘째 “如來藏 性寂不動”은 여래장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셋째 “如來藏者 生滅慮知相 隱理不顯 是如來藏 性寂不動”은 심성·심체가 비록 번뇌장에 적정(은복)되어 있으나 부동(불변이)인 것에 대해서라고 주석한다. 이를 통해 원효는, 『불성론』의 장(藏)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이면서도 진제가 한역한 불성(佛性)을 계·성·체(dhātu)와 세 가지 중성(gotra)으로 구분함으로써, 『불성론』의 유가행파에 의한 여래장(如來藏) 해석과 진제의 불성(dhātu·gotra, 佛性)의 한역을 극복하고, 여타 불교의 사상들과 다른 고유한 여래장사상을 분명하게 표명한다.

구체적으로 첫째에서는 시각의 마음과 일심·여래장의 심성·심체가 본래 본각·여래법신이라는 것이 설해진다. 즉 무구진여·불성을 중심으로 여래장을 해석하고 있는 『불성론』과는 달리, 원효가 여래법신·심성을 중심으로 여래장을 해석하고 있음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기신론』에서 일심의 생멸문 중 각의(覺義)로서 설해진 것이다.⁴³⁾ 두 번째에서 일심·여래장의 심성·심체가 섭장·은복되어 있으나 변이하지 않는 것을 원효는 『부증불감경』의 세 가지 여래장 해석과 『승만경』의 공(空), 불공(不空)의 여래장에 의해서 해석한다.⁴⁴⁾ 이는 『기신론』에서 일심의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설해진 것이다.⁴⁵⁾ 세 번째에서는 일체중생·여래장의 심성·심체가 자성, 원인, 결과를 의미하는 중성(gotra; 자성위, 인위, 과위의 중성)이 아니라 불개(不改), 밀장(密藏)을 의미하는 계(dhātu; 몸·마음의 핵심·본성)라는 것이 설해진다.⁴⁶⁾

42) 『금강삼매경론』(『韓佛全』 1, p.604下), “諸佛如來 於焉而藏 一切菩薩 於中隨入 如是名爲入如來藏 是爲六品之大意也” 참조.

43) 『기신론』(『韓佛全』 1, p.748中), “所言覺義者 謂心體離念 離念相者 等虛空界 無所不遍 法界一相 卽是如來平等法身 依此法身說名本覺 何以故 本覺義者 對始覺義說 以始覺者 卽同本覺” 참조.

44) 『금강삼매경론』(『韓佛全』 1, pp.615中-616下), “此中略明如來藏義 如來藏門有二有三 所言三者 如不增不減經言 … 言二門者 如夫人經言 空如來藏者 若離若脫若異一切煩惱藏 不空如來藏者 不離不脫不異不思議佛法” 참조.

45) 『기신론』(『韓佛全』 1, pp.740下-741上), “顯示正義者 依一心法有二種門 云何爲二 一者心眞如門 二者心生滅門 是二種門皆各總攝一切法 [원효 소] … 此一心體是本覺 而隨無明動作生滅 故於此門 如來之性 dhātu 隱而不顯 名如來藏 如經言如來藏者是善不善因 能遍興造一切趣生 … 是顯一心之生滅門” 참조.

1. 장(garbha, 藏)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여래의 장(藏)을 『불성론』처럼 섭장(攝藏) 혹은 은복(隱覆)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여래장(如來藏)에 대한 해석에서 교학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불성론』에서는 옥 로덴쨌랍처럼 세 가지 의미 중 둘째 무구진여로 귀결시켜서 “무구진여를 섭장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 원효는 『부증불감경』과 『승만경』에 의해서 세 가지 의미 중 첫째 여래법신으로 귀결시켜서 “여래법신을 섭장하고 있다.”라고 해석한다.⁴⁷⁾ 더 나아가 여래장과 객진번뇌의 관계가 불분명한 『불성론』과는 달리, 둘째 진여에서 분명하게 여래의 장(garbha, 藏)을 번뇌·장(kośa, 藏)과 결부시키고,⁴⁸⁾ 셋째 중성에서 다카사키와 옥 로덴쨌랍에게 있는 염정의지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한다. 말하자면 여래장은, 첫째 공덕들이 불공(不空)인 여래법신을 섭장하고 있고, 둘째 본래 공(空)인 번뇌장에 은복되어 있고, 셋째 자신의 여래성, 즉 여래법신·계·성·체가 번뇌장의 유무에 따라 자성위에서 은복되어 있고 인위에서 출현하고 과위에서 현현하는 일체중생, 셋 다 의미한다. 이는 한역 『열반경』의 여래장 해석과도 동일하다.⁴⁹⁾ 이러한 원효의 해석은 『보성론』과 『능가경』을 통합해서 재해석한 『기신론』의 여래장 해석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원효는 『부증불감경』의 세 가지 여래장 해석에 의해서 법신, 진여, 중성의 장(藏)을 차례대로 능섭장, 소섭장, 은복장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내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세 가지 여래장문을 나타낸 것이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 46) 『금강삼매경론』(『韓佛全』 1, p.617中), “今此文中所言性者 含此五義 寂不動者 略顯後二 寂是密藏義 不動是不改義故” 참조. ; 상주하는 여래법신이 일체중생의 불성인 것은 幅田裕美, 『불성의 선언-열반경-』, 앞의 책, 下田正弘 외저 김성철 역, pp.152-156. 참조.
- 47) 『금강삼매경론』(『韓佛全』 1, p.615中), “案云 … 一者 能攝如來藏 … 能攝如來[法身] 名如來藏故” 참조. ; 『부증불감경』(『大正藏』 16, p.467中), “即此法身 過於恒沙無邊煩惱所纏 … 名為眾生” 참조. ; 『승만경』(『大正藏』 12, p.221下), “如來法身不離煩惱藏 名如來藏” 참조.
- 48) RGV pp.59,10-60,11. “tat kleśa-kośa-garbhatvaṃ punar jñeyam nidarśanaiḥ ||95|| … kutsita-padma-kośa-sadrśāḥ kleśāḥ | buddha-vat tathāgata-dhātur iti” 저 번뇌·장(kośa, 藏)이 [여래의] 장(garbha, 藏)인 것은 다음 [『여래장경』에서 설해진 아홉 가지] 비유에 의해 알아야 한다. … [첫째] 번뇌들은 더러운 연꽃·겉질(kośa)과 같고, [연꽃 안에 있는] 여래·성(dhātu, 계·체)은 붓다 [즉 여래법신]과 같다.
- 49) 『열반경』(『大正藏』 12, p.405中), “若人不聞如來甚深祕密藏(여래장)者 … 佛說中道一切眾生悉有佛性 煩惱[所]覆故 不知不見 是故 應當勤修方便 斷壞煩惱” 참조. ; 『니원경』(『大正藏』 12, p.881中), “復有比丘廣說如來藏經 言一切眾生 皆有佛性 在於身中 無量煩惱悉除滅已 佛便明顯” 참조.

첫째는 능섭의 여래장이다. [즉] 이미 자성위에서도 과위에 있는 여래의 공덕(지혜)을 섭장(內在)하고 있는 것이다. [일체중생이] 여래를 섭장하고 있는 것을 여래장이라고 한다.

둘째는 소섭의 여래장이다. 즉 번뇌에 묶인 불청정법 일체가 모두 여래 지혜의 내에 있고 모두 여래에 의해 섭지되고 있는 것이다. [일체중생이] 여래에 의해 섭지되고 있는 것을 여래장이라고 한다.

셋째는 은복의 여래장이다. 즉 여래·법신이 번뇌장에 은복되어 있는 것이다. [일체중생의] 여래[법신·심체·불성]이 무시이래 은복되어 있는 것을 여래장이라고 한다.⁵⁰⁾

첫째 법신은 『부증불감경』의 “如來藏本際相應體及清淨法”에 의해서 해석한 것이다. 원효에 의하면, “本際相應體”는 본래정문(本來靜門)에서 공덕들과 본래 결합해 있는 심체이고, “及清淨法”은 본래 오염되지 않은 공덕들이다.⁵¹⁾ 여기서 원효는 일체중생의 심체가 과위에 있는 여래·법신인 근거는 심체에게 오상(五相)이 있고 공덕들도 오의(五義)가 있어서 심체와 본래 결합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⁵²⁾ 오상과 오의 모두, 첫째 소취의 차별이 없고, 둘째 능취의 집착이 없고, 셋째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평등하고, 넷째 허공처럼 모든 곳에 변만하고, 다섯째 유무 등의 양변을 여의어서 심행처를 여의고 언어도가 끊어진 것이다.

『금강삼매경』에서 심체는 심원(心源), 즉 암마라식이라고 불리고, 원효는 이를 제9식·무구식이라고 규정하면서 진제의 9식설이 여기서 비롯한다고 주석한다.⁵³⁾ 암마라식을 심원이라고 한 것은 심체가 공덕들을 본유하고 있는 여래법신이기 때문이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금강삼매경』에서는 잃어버린 아들(迷子)의 비유를 든다. 본래 가지고 있던 금전(金錢, 공덕)을 아버지의 충고로 되찾게 되었다는 것이다.⁵⁴⁾ 이에 대해 『기신론』에서는 구경각에서 심원을 깨닫게 된다고 하고,⁵⁵⁾ 『금강삼매경론』에서는 묘각위에서 심원에 되돌아가간다고 표

50) 『금강삼매경론』(『韓佛全』1, p.615中), “案云 是顯三種如來藏門何等爲三一者 能攝如來藏住自性時 能攝果地如來功德 能攝如來名如來藏故 二者 所攝如來藏 謂煩惱纏不清淨法 一切皆在如來智內 皆爲如來之所攝持 如來所攝 名如來藏 三者 隱覆如來藏 謂法身如來 煩惱所覆 如來自隱 名如來藏”

51) 『금강삼매경론』(『韓佛全』1, p.616中), “言本際相應體者 本來靜門 備恒沙德 與心相應故 是相應功德之體 言及清淨法者 能依功德 性離染故 合取能依所依之法以爲第一如來藏體” 참조.

52) 『금강삼매경론』(『韓佛全』1, p.616上-中), “不離不脫不斷不異不思議佛法相應 名爲法身 是義云何 此一心體 略有五相 … 過恒沙等本有功德 亦有五義 與體相應 …” 참조.

53) 『금강삼매경론』(『韓佛全』1, p.630下), “尊者 以何利轉 而轉衆生一切情識 入唵摩羅 [원효 술] … 一切情識 卽是八識 唵摩羅者 是第九識 眞諦三藏 九識之義 依是文起” 참조.

54) 『금강삼매경론』(『韓佛全』1, p.635上-中), “譬如迷子 手執金錢而不知有 … 其子醒已 而得金錢 … [원효 술] … 初喻中言迷子者 謂諸衆生 迷自心源 如來大悲 如視一子 故喻迷子” 참조.

현한다.⁵⁶⁾

둘째 진여는 『부증불감경』의 “如來藏本際不相應體及煩惱[所]纏不清淨法 … 唯有如來菩提智之所能斷”에 의해 해석한 것이다. 원효에 의하면, “不相應”은 번뇌들이 심체와 결합해 있지 않은 것이고, “不相應體”는 심체가 수연동문(隨緣動門)에서 일체염법의 소의인 것을 말한다.⁵⁷⁾ “煩惱[所]纏不清淨法”은 심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번뇌장이 일체염법의 원인인 것을 말한다.⁵⁸⁾ 이때 원효가 “여래법신에 의해 섭지되고 있다.”라고 한 것은 번뇌장을 오직 첫째 여래법신의 보리·지혜만이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효는 『보성론』 제27계송 첫째 법신의 의미에 대해서, 『불성론』에서 “일체중생 모두 여래지(如來智)의 내에 있다.”라고 해석한 것을 지금 둘째 진여(소섭의 여래장)에서 인용하면서도,⁵⁹⁾ 첫째 법신(능섭의 여래장)에서 “일체중생은 여래의 공덕(지혜)을 섭장(內在)하고 있다.”라고 독자적인 여래장 해석을 드러내고 있다.

원효는 번뇌장이 허망하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공(空)이고, 번뇌장이 여래법신을 은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래장이라고 설명한다.⁶⁰⁾ 이는 『승만경』의 두 가지 여래장 중 공여래장에 의해서,⁶¹⁾ 『기신론』의 두 가지 심진여문 중 여실공에서 설해진 것이다.⁶²⁾ 물론 『승만경』의 불공여래장과 『기신론』의 여실불공은 첫째 여래법신의 의미로 설해진 것이다.⁶³⁾ 말하자면 첫째 여래법신이 섭장하고 있는 공덕들은 불공이고, 둘째 여래법신을 은복하고 있는 번뇌장

55) 『기신론』(『韓佛全』 1, p.749下), “又以覺心源故 名究竟覺” 참조.

56) 『금강삼매경론』(『韓佛全』 1, pp.656下-657上), “今到妙覺 永離生滅 窮歸本覺 一心之源 故入第九 識中明淨” 참조.

57) 『금강삼매경론』(『韓佛全』 1, p.616上), “本際不相應體者 諸煩惱法 違反心體 名不相應 一心之體 隨緣動門 爲彼所依故 是不相應法之體” 참조.

58) 『금강삼매경론』(『韓佛全』 1, p.616上), “言及煩惱纏不清淨法者 彼能依法 依心體轉 纏自心體 隨染故 合取能依所依之法 以爲第二如來藏體” 참조.

59) 『금강삼매경론』(『韓佛全』 1, p.615中), “二者 所攝如來藏 謂煩惱纏不清淨法 一切皆在如來智內 皆爲如來之所攝持” 참조.

60) 『금강삼매경론』(『韓佛全』 1, p.616下), “案云 諸煩惱法 皆是虛妄由境不實故虛 由體散亂故妄 妄故無眞 虛故無實 無眞實故 說名爲空 能覆如來 名如來藏 卽是空議 隱覆眞也” 참조.

61) 『승만경』(『大正藏』 12, p.221下), “空如來藏 若離若脫若異一切煩惱藏 … 不空如來藏 不離不脫 不異不思議佛法” 참조.

62) 『기신론』(『韓佛全』 1, p.744中), “此眞如者 … 一者如實空 以能究竟顯實故 二者如實不空 以有自體具足無漏性功德故” 참조.

63) 『금강삼매경론』(『韓佛全』 1, p.616下), “言不空者 一切功德 與體相應 體非妄故眞 境非虛故實 由眞實故 說名不空 如來被覆 名如來藏” 참조.; 『기신론』(『韓佛全』 1, p.745中), “所言不空者 … 卽是眞心 常恆不變 淨法滿足 則名不空” 참조.

은 공인 것이다. 특히 원효는 『기신론』 귀경계(歸敬僞)에 대한 주석에서 공성·진여를 법보(法寶)로 간주한다.⁶⁴⁾ 이는 『승만경』과 『기신론』의 원효 주석에서 첫째 여래법신을 불보(佛寶)로 간주하는 것과 대비된다.⁶⁵⁾

셋째 중성은 『부증불감경』의 “如來藏未來際平等恒及有法者 即是一切諸法根本 備一切法 具一切法 於世法中不離不脫”에 의해 해석한 것이다. 원효에 의하면, “未來際平等恒”은 일심·여래장의 계·성·체가 삼세에 두루해서 미래에도 변이가 없는 여여(如)를 의미하고, “及有法”은 자성위로부터 와서 과위에 이르는 것(來)이다. “一切諸法根本 備一切淨法 具一切染法”은 일심·여래장이 일체정법과 일체염법의 소의·원인인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備一切淨法”은 일심·여래장이 본래정문에서 향사의 공덕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具一切染法”은 일심·여래장이 수연동문에서 향사의 염법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於世法中不離不脫”은 일체중생·여래장의 여래성, 즉 여래법신·계·성·체가 무시이래 번뇌장에 은복되어 있는 것이다.⁶⁶⁾

일심·여래장이 일체정법과 일체염법의 소의·원인인 것은 이미 『승만경』, 『보성론』, 『기신론』에서 설해졌고, 여래장과 아뢰야식을 동일시하는 『능가경』에서도 설해졌다.⁶⁷⁾ 구체적으로 『기신론』에서 일심의 생멸문의 각의와 불각의로 설해진 것이다. 일심·여래장을 『기신론』에서는 불생불멸(본래정문)이 생멸(수연동문)과 화합해 있는 아뢰야식이라고 말한다.⁶⁸⁾ 원효는, 『능가경』에서 아뢰야식에 진상(眞相; 본래정정·불생불멸), 업상(業相; 염오), 전상(轉相; 생멸)이 있다고 한 것을,⁶⁹⁾ 『기신론』 주석에서 아뢰야식의 분위(分位)에 업식(業識)과 전식(轉識)이 있다고 주석한다.⁷⁰⁾ 즉 여래장·아뢰야식은 각의(진상)와 불각의(업상·전

64) 『기신론』(『韓佛全』 1, p.736上), “[원효 소] 次顯法寶 … 言眞如者 無遣日眞 無立日如 … 故名爲眞如” 참조.

65) 『기신론』(『韓佛全』 1, pp.735中-736上), “[원효 소] [佛寶之內亦有三意 … 如來智亦爾 … 如來色身 … 諸佛世尊 … 上來三句歎佛寶竟” 참조.

66) 『금강삼매경론』(『韓佛全』 1, p.616下), “一心 通爲一切染淨諸法之所依止故 故即是諸法根本 本來靜門 恒沙功德 無所不備 故言備一切法 隨緣動門 恒沙染法 無所不具 故言具一切法 … 故言於世法中 不離不脫 不離脫義 是隱藏義” 참조.

67) LAS p.220,9-10. “tathāgata-garbho mahāmate kuśala-akuśala-hetukaḥ sarva-janma-gati-kartā” 참조. ; LAS p.242,2-17. “tathāgata-garbhah punar mahāmate saṃsaratī-nirvāṇa-sukha-duḥkha-hetukaḥ” 참조.

68) 『기신론』(『韓佛全』 1, p.745下), “心生滅者 依如來藏故有生滅心 所謂不生不滅 與生滅和合 非一非異 名爲阿黎耶識” 참조. ; LAS pp.235,15-236,1. “kṣaṇikam punar mahāmate ālaya-vijñānam tathāgata-garbha-saṃsāditam manaḥ-sahitam pravṛtti-vijñāna-vāsanābhiḥ kṣaṇikam anāsrava-vāsanābhir akṣaṇikam |” 참조.

69) 양용선(승행), 『楞伽經』의 如來藏 研究, 박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 대학원, 2019), pp101-105. 참조.

상)가 있기 때문에 일체정법을 섭장하고 일체염법을 생하는 것이다.⁷¹⁾

종합하면 첫째 법신에서 향사의 공덕이 본래정문에서 일체정법의 소의임을 별도로 나타냈고, 둘째 진여에서 번뇌장이 수연동문에서 일체염법의 원인임을 별도로 나타냈고, 셋째 종성에서 일체중생·여래장·일심·아뢰야식이 동정에 통하고 염정의 소의·원인임을 총체적으로 밝힌 것이다.⁷²⁾ 이러한 원효의 여래장 해석은, 다카사키와 옥 로덴쎬랍의 여래장 해석이 갖고 있는 염정의지의 문제를 남기지 않고, 『불성론』의 침묵을 극복하고 여래장(tathāgata-garbha)이 일체정법의 소의이고 일체염법의 원인인 것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다.

2. 계·성·체(dhātu)와 종성(gotra)

원효는 일체중생·여래장의 계·성·체, 즉 『부증불감경』과 『승만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성청정심, 『보성론』에서 여래계·심계, 『기신론』에서 심체·심성·심원, 혹은 『열반경』에서 여래성·불성은 무위법인 dhātu이라고 강조한다. 물론 『능가경』에서 아뢰야식의 진상, 『기신론』에서 진식·진심·각체·본각, 『금강삼매경』에서 암마라식·무구식도 마찬가지다. 이미 언급했듯이 천천이 지은 『불성론』을 한역한 진제는 buddha-gotra와 buddha-dhātu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불성으로 한역하였다. 이를 유념하고 있던 원효는 『금강삼매경』의 “如來藏 性寂不動”에 의거해서 일체중생·여래장의 계·성·체는 밀장, 불개를 의미하는 dhātu이고 자성, 원인, 결과를 의미하는 hetu 혹은 gotra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⁷³⁾ 구체적으로 『금강삼매경』의 “佛言如來藏者 生滅慮知相 隱理不顯 是如來藏 性寂不動”에 대한 주석에서 잘 나타나 있다.

원효는 “生滅慮知相 隱理不顯”은 공(空) 여래장의 능은복(能隱覆)를 의미하고, “是如來藏 性寂不動”은 불공(不空) 여래장의 소은복(所隱覆)을 의미한다고 주석한다.⁷⁴⁾ 전자는 공성·진여(소섭장의 여래장)에서 번뇌장이 계·성·체를 은복하고 있음을 말하고, 후자는 여

70) 『기신론』(『韓佛全』 1, p.746上), “[원효 소] 此中業識者 因明力不覺心動 故名業識 又依動心轉成 能見 名轉識 此二皆在梨耶識位” 참조.

71) 『기신론』(『韓佛全』 1, p.747中), “此識有二種義 能攝一切法 生一切法 云何爲二 一者覺義 二者不覺義” 참조.

72) 『금강삼매경론』(『韓佛全』 1, p.616上), “此第三門 總明一心 通於動靜 爲染淨依 第二門者 別顯動門 染法所依 第一門者 別顯靜門 淨法所依” 참조.

73) 『금강삼매경론』(『韓佛全』 1, p.617中), “今此文中 所言性者 含此五義 寂不動者 略顯後二 寂是密藏義 不動是不改義故” 참조.

74) 『금강삼매경론』(『韓佛全』 1, p.617上), “生滅慮知相者 卽是空如來藏 但此文中 顯能隱義 而不名此爲如來藏 言隱理不顯 是如來藏者 是不空如來藏 約所隱義 名如來藏” 참조.

래·법신(능섭장의 여래장)에서 계·성·체가 번뇌장에 적정·은복되어 있더라도 언제나 부동·불변임을 말한다. 이러한 원효의 주석은, 능섭장과 소섭장은 여래·법신의 입장에서, 소은복과 능은복은 번뇌장의 입장에서, 장(garbha, 藏)을 다각도로 해석한 것이다.

이어서 원효는 『금강삼매경』의 “是如來藏 性寂不動”을 ‘여래장의 성이 비록 감춰져 있으나 본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석하면서, 그 성은 다섯 가지 의미가 있다고 소개한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첫째, 둘째, 셋째는 『불성론』에서 각각 자성위의 종성이 증득해야 하는 인(소의), 인위의 종성이 가행해야 하는 인(원인), 과위의 종성이 원만해야 하는 인(가행)이다.⁷⁵⁾ 넷째, 다섯째는 일체중생·여래장의 계·성·체이다.

첫째는 종류·자성으로서의 성이다. 마치 일체 색법이 사대를 여의지 않고 모두 사대로서 성을 삼고 있듯이, 일체중생이 하나의 계를 여의지 않고 하나의 계를 종류·자성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⁷⁶⁾ 하나의 계는 『불성론』에서 자성위의 종성(초지 이전)이 증득해야 하는 인(소의)인 무구진여·불성이다. 『불성론』에서 인은 두 가지, 즉 첫째 불성(dhātu; 소의)과 둘째 신해(信解; 원인)가 있다.⁷⁷⁾ 첫째는 무위의 여리(如理; 진여)를 자성으로 하는 무위법이다.⁷⁸⁾

둘째는 원인으로서의 성이다. 마치 나무에 화성(火性)이 있어 불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삼는 것처럼, 성인이 무루법으로 원인을 삼아 공덕들의 원만을 성취하기 때문이다.⁷⁹⁾ 이 성은 인위의 종성(초지 이후)이 가행해야 하는 인(원인: 신해)이다. 『불성론』에서 둘째 신해는 성득(性得)의 불성(인위의 종성)에 의하면 요인(了因; 보리심)이다. 능히 정인(正因; 소의)인 성(dhātu)을 증득하기 때문이다. 또한 둘째 신해는 가행에 의하면 생인(生因; 원인)이기도 하다. 능히 온갖 수행(가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⁸⁰⁾

셋째는 생기·지득으로서의 성이다. 마치 황금을 녹여 장신구를 만들 때 장신구가 황금으로 성을 삼는 것처럼, 이 계가 과위에서 여래법신을 생기·지득할 때, 이 계로서 성을 삼는 것

75) 『불성론』(『大正藏』 31, p.794上), “復次佛性體有三種 … 三種者所謂三因 三種佛性 三因者一應得因 二加行因 三圓滿因 …” 참조.

76) 『금강삼매경론』(『韓佛全』 1, p.617上), “一種類義 是性義 如瓶衣等一切色法 不離四大種類 皆以四大爲性 如是衆生不出一界 皆用一界爲種類故” 참조.

77) 『불성론』(『大正藏』 31, p.798上), “初言因者 有二 一佛性 二信樂 此兩法 佛性是無爲 信樂是有爲” 참조.

78) 『불성론』(『大正藏』 31, p.794上), “此三因 前一則以無爲如理爲體 後二則以有爲願行爲體” 참조.

79) 『금강삼매경론』(『韓佛全』 1, p.617上), “如木中有火性 與火作因 故名爲性 如是聖人諸無漏法 以此爲因而得成” 참조.

80) 『불성론』(『大正藏』 31, p.798上), “信樂約性得佛性爲了因 能顯了正因性故 信樂約加行爲生因 能生起厭行故” 참조.

이다.⁸¹⁾ 이 계는 과위의 종성(제8지 이후)이 원만해야 하는 인(가행)이다.⁸²⁾ 왜냐하면 가행으로부터 과위의 종성이 원인의 원만을 생기고 과보의 원만을 지득하기 때문이다. 『불성론』에서 둘째와 셋째는 원행(願行)을 자성으로 하는 유위법이다.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 원효는 『금강삼매경』의 “신위(信位)에서 자신 안의 진여·종자, 망심을 여의고, 청정심이 맑고 밝음을 믿는다.”라는 경문의 주석에서 세 가지 인(hetu)이 각각 세 가지 종성(gotra)에게 있음을 믿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⁸³⁾

넷째는 불개(不改)로서의 성이다. 마치 금강이 몇 겁 동안에도 있는 그대로 머물면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것과 같다. 이처럼 이 계(dhātu; 소의·불성)도 삼세에 걸쳐 그대로 머물면서 세간에서 파괴되지도 않고 출세간에서 없어지지도 않는다.⁸⁴⁾ 구체적으로 『부증불감경』에 의하면 중생계가 부증불감하는 것은 법계에서 동일한 여래법신이 언제나 불생불멸하는, 즉 상주·견고·적정·불변의 무위법이기 때문이다.⁸⁵⁾ 『열반경』에서 여래성·불성도, 『기신론』에서 진심·심체·심성도, 『금강삼매경론』에서 암마라식·무구식·심원도 마찬가지다. 물론 여래법신은 『승만경』에서 도후(道後)의 멸제(滅諦)일 뿐만 아니라 궁극의 귀의처인 불보이다.

다섯째는 밀장(密藏)으로서의 성이다. 마치 광석속에 진실한 금성(金性)이 은복되어 있는 것과 같다. 만약 광석을 파괴하지 않으면 어떠한 이익도 없기 때문에, 순서대로 광석을 녹여 금성을 꺼내야 곧바로 출현하고 현현해서 보배로서 작용하게 된다.⁸⁶⁾ 구체적으로 원효는 『기신론』 주석에서 저 금성, 즉 무량한 본유의 공덕(hetu; 보리심·가행)들을 인위의 종성·보살이 섭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⁸⁷⁾

81) 『금강삼매경론』(『韓佛全』 1, p.617上), “如鍊眞金生莊嚴具 莊嚴具生 以金爲性 此界亦爾能生果地五分法身 法身之生 此界爲性” 참조.

82) 『불성론』(『大正藏』 31, p.794上), “圓滿因者 即是加行 由加行故 得因圓滿 及果圓滿” 참조.

83) 『금강삼매경론』(『韓佛全』 1, p.654中-下), “信位 信此身中 眞如種子 … 捨離妄心 淨心清白 [원효술] 初明信者 所謂信有[於]三種佛性 信此身中眞如種子者 信住自性佛性 眞如正是第一義空種子 … 言捨離妄心者 是信引出佛性 … 言淨心清白者 是信至得佛性” 참조.

84) 『금강삼매경론』(『韓佛全』 1, p.617上), “不改義是性義 猶如金剛實性 一劫等住 無增無減 如是此界 三世等住 世間不壞 出世不盡” 참조.

85) 『부증불감경』(『大正藏』 16, p.467, 上-中), “此法身者 是不生不滅法 … 如來法身常 … 如來法身恒 … 如來法身清涼 … 如來法身不變 …” 참조.

86) 『금강삼매경론』(『韓佛全』 1, p.617上), “密藏義 是性義 如黃石中有眞金性 若不破鑛 無所利益 隨順鍊治 卽有實用 是故彼性 是隱藏義 如來藏性 當知亦爾 不破其纏 爲外爲染 破纏相應 成內成淨 故知此性 是密藏義” 참조.

87) 『기신론』(『韓佛全』 1, p.736中), “[원효 소] 言無量功德藏者 舉德取人 謂地上菩薩 … 如是功德總

넷째, 다섯째는 『기신론』에서 중생심·여래장의 체대(體大)·상대(相大)·용대(用大)로 언급되어 있고, 이중 상대에 대해 원효는 능섭의 여래장, 즉 불공의 여래장이라고 주석한다.⁸⁸⁾ 구체적으로 일체중생·여래장의 본래 청정한 여래법신·심계·불성이 일체중생, 성문, 연각, 보살, 제불에게서도 증감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에서도 생멸이 없고 무량한 본유의 공덕들을 본래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⁸⁹⁾

IV. 결론

동아시아에서는, 다카사키 지키토와 옥 로덴세랍과는 달리, *tathāgata-garbha*를 여래장(如來藏)이라고 한역한다. 구체적으로 진제가 한역한 『불성론』과 『금강삼매경론』을 주석한 원효는 여래의 장(藏)을 섭장(攝藏) 혹은 은복(隱覆)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여래장 해석에서 『불성론』과 원효는 교학적으로 견해의 차이가 확연하다. 첫째 섭장과 관련해서 일체중생이 섭장하고 있는 불성(佛性)을, 유가행파의 관점에서 『불성론』은 무구진여로 간주하고, 반면에 『부증불감경』과 『승만경』에 기초해서 원효는 여래법신으로 간주한다. 둘째 은복과 관련해서 『불성론』에서는 여래장과 객진번뇌의 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원효는 여래의 장(藏)을 번뇌·장(藏)과 결부시킨다. 셋째 *gotra*와 *dhātu*의 번역과 관련해서, 진제는 모두 불성(佛性)으로 한역하였지만, 원효는 계·성·체(*dhātu*)는 중성(*gotra*)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결국 『여래장경』의 “*sarva-sattvās tathāgata-garbhāḥ*”를, 『불성론』은 “일체중생은 무구진여·불성을 섭장하고 있는 붓다에 속한 중성들이다.”라고 해석하고, 원효는 “일체중생은 여래법신·불성을 섭장하고 있으나 번뇌장에 은복되어 있는 붓다에 속한 중성들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효의 여래장 해석에 의해서 『보성론』 제1장 제27계송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중생의 무리가 붓다의 지혜를 내재(內在; 섭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붓다]의 무구[진여]가 본래 [중생 무리의 것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屬菩薩人能攝德 故名爲藏” 참조.

88) 『기신론』(『韓佛全』 1, p.739), “所言義者則有三種 云何爲三 一者體大 謂一切法眞如平等不增減 故二者相大 謂如來藏具足無量性功德故 三者用大 能生一切世間出世間善因果 … [원효 소] 言如來藏具足無量性功德者 二種藏內 不空如來藏 二種藏中 能攝如來藏” 참조.

89) 『기신론』(『韓佛全』 1, p.771中), “眞如自體相者 一切凡夫聲聞緣覺菩薩諸佛無有增減 非前際生 非後際滅 畢竟常恆 從本已來 性自滿足一切功德 … 故名爲如來藏 亦名如來法身” 참조.

붓다에 속한 중성에 대해 저 [붓다]가 결과라고 가설되기 때문에,
‘일체 유신(有身; 중생)들은 붓다를 섭장하고 있는 [붓다에 속한 중성]들이다.’라고 설해졌다.

다카사키 지키토는 여래장사상이란 일체중생에게 여래장(여래가 될 원인)·불성(붓다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불교에서 성불 가능성을 부정하는 어떠한 사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원효에 의하면 여래장사상은 일체중생이 본래 여래·붓다임을 주장하는 사상이다. 구체적으로 일체중생의 계·성·체가 바로 여래·붓다임을, 그러나 아직은 계·성·체가 번뇌장에 은복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사상이다. 더 나아가 일체중생들이 본래 자신이 여래·붓다임을 자각하고 있는 마음(신해·보리심)으로 붓다에 속한 중성, 즉 일불승(一佛乘)의 불자(佛子)로서 살아가기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상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나머지 사상과 다른 여래장사상만의 고유한 주장일 것이다.

〈참고문헌〉

1. 원전류

- RGV *Ratnagotravibhāgo mahāyānottaratantra-śāstra*. In: *The Ratnagotravibhāgo mahāyānottaratantra-śāstram*, ed. by E.H.Johnston, Patna: Bihar Society, 1950.
- LAS *Lankāvatāra Sūtra*. In: *The Lankāvatāra Sūtra*, ed. by Bunyiu Nanjio, Kyoto: At The Otani University Press, 1956.
- 『勝鬘師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大正藏12)
- 『大般涅槃經』(大正藏12)
- 『佛說大般泥洹經』(大正藏12)
- 『佛說不增不減經』(大正藏16)
- 『佛性論』(大正藏31)
- 『大乘起信論疏記會本』(『韓佛全』1)
- 『金剛三昧經論』(『韓佛全』1)

2. 단행본류

- 김성철 역주, 『불성론』, 서울: 씨아이알, 2013.
- 高崎直道, 『如來藏思想の形成』, 東京: 春秋社, 1974.
- _____, 『如來藏思想 I』, 京都: 法藏館, 1988.
- _____, 『如來藏思想 II』, 京都: 法藏館, 1989a.
- _____, 『宝性論』, 東京: 株式會社講談社, 1989b.
- 平川彰 編, 『如來藏と大乘起信論』, 東京: 春秋社, 1990.
- 下田正弘 외 저, 김성철 역, 『여래장과 불성』, 서울: 씨아이알, 2015.
- 下田正弘 저, 이자랑 역, 『열반경 연구』, 서울: 씨아이알, 2018.

3. 논문류

김성철, 「초기유가행파의 “여래장(tathagatagarbha)” 개념 해석」, 『印度哲學』 제27권, 서울: 印度哲學會, 2009, pp.91-124.

_____, 「유가행파의 “여래장” 개념 해석 Ⅱ」, 『印度哲學』 제32권, 서울: 印度哲學會, 2011, pp.193-220.

양용선(승행), 『楞伽經』의 如來藏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9.

차상엽, 「옥 로덴세랍(rNgog Blo ldan shes rab)의 여래장 이해」, 『불교학리뷰』 제10권, 서울: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11, pp.127-161.

<Abstract>

The Interpretation of tathāgata-garbha in *Vajra-samādhi-sūtra-śāstra* by Wonhyo

Yang, Yong-Sun(Ven. Seung-Haeng)

The tathāgata-garbha thought is an idea claiming that all living beings are tathāgata-garbha in *Tathāgata-garbha-sūtra*, and all living beings have buddha-dhātu in *Parinirvāṇa-sūtra*. In particular, the claim that all living beings are tathāgata-garbha is analyzed in the 27th verse in Chapter 1 of the *Ratna-gotra-vibhāga* in three meanings: dharma-kāya, tathatā, and gotra. So far, there are two trends in interpreting tathāgata-garbha, using the transformation and the manifestation theories. The transformation theory interpretation is represented by Jikido Takasaki and rNgog Blo ldan shes rab, the manifestation theory by *Bauddha-gotra-śāstra*, translated by Jeanje, and *Vajra-samādhi-sūtra-śāstra*, commented by Wonhyo.

Among modern scholars, the transformation theory interpretation is mainstream, while the manifestation theory has recently emerged. According to the transformation theory, tathāgata-garbha and buddha-dhātu · bauddha-gotra are the saṃskṛta-dharma, which exists as possibility · hetu to all living beings.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manifestation theory, the amala-tathatā · buddha-dhātu or tathāgata-dharma-kāya · buddha-dhātu that all living beings contain is the asaṃskṛta-dharma that is covered or appears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the absence of kleśa-kośa.

Jeanje interprets tathāgata-garbh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Yogācāra School, while Wonhyo interprets it based on *Anūna-anadhika-sūtra* and *Śrīmālā-devī-siṃha-nāda-sūtra*. Specifically “sarva-sattvās tathāgata-garbhāḥ” described in *Tathāgata-garbha-sūtra* is interpreted as “all living beings are bauddha-gotra who contains amala-tathatā · buddha-dhātu inside.” by Jeanje, and “all living beings contain tathāgata-dharma-kāya · buddha-dhātu inside, but all living beings are bauddha-gotra who is covered in kleśa-kośa.” by Wonhyo.

Until now, the tathāgata-garbha thought has been known to claim that all living beings has tathāgata-garbha (the cause of becoming tathāgata) and bauddha-gotra (the possibility of

becoming buddha). But according to Wonhyo's view, the tathāgata-garbha thought is the idea that all living beings are naturally tathāgata · buddha. Specifically, the tathāgata-garbha thought suggests that dhātu in all living beings (gotra) is tathāgata · buddha, but that dhātu is still covered in kleśa-kośa. This idea is the tathāgata-garbha thought that the 27th verse in Chapter 1 of the *Ratna-gotra-vibhāga* is trying to present.

• **Keywords**

Tathāgata-garbha, Buddha-dhātu, The manifestation theory, *Tathāgata-garbha-sūtra*, *Ratna-gotra-vibhāga*, *Bauddha-gotra-śāstra*, *Vajra-samādhi-sūtra-śāstra*.

논문접수일: 2021년 1월 28일, 심사완료일: 2021년 3월 8일, 게재확정일: 2021년 3월 12일.
--